

# 정세균·이광재, 대선후보 단일화 손 잡았다... “정권 재창출”

정세균 예비후보로 단일화  
“혁신과 통합의 정치 창출”  
당 내 추가 연대 가능성 일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 합의를 밝힌 후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예비후보가 첫 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세균·이광재 예비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라며 정세균 예비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심한데 대해 “민주당은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결심에 대해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

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에게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한 경제적 공존은 물론, 혁신과 통

합의 정치 창출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 두 사람의 하나 된 힘과 지지자들의 열원을 담아 이광재와 정세균의 꿈,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달 28일 단일화에 나서기로 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정 후보로 단일화한 방식에 대해 양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 측 김민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두 분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말한 큰 틀에 따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와 추가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非) 이재명계 연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만큼 나머지가 뭉쳐서 견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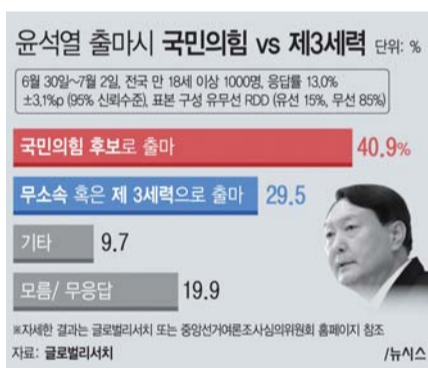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단일화에 합의한 두 후보 측은 ‘비 이재명계 연합’ 전망과 관련 “경선 과정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 합종연횡(合從連橫)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송기헌 의원은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위해서 단일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가 7명 이상이면 오는 11일 컷오프 예비경선을 치러 6명으로 추릴 방침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윤석열 전제카드 ‘제3지대 필패론’ 띄우는 野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권유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제3지대 필패론’을 띄우는 분위기다. 최근 외연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통해 우리 당 지지자들의 경쟁력이 재평가되고 관심받으면서 어느 시점에 ‘당 안에 있는 분이든, 당 밖에 있는 분이든 나가도 이기는 상황이 (예측) 되니까 당밖 지지자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며 제3지대 후보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시 시점이 되면 국민들 관심이 경선에 쏠릴 거다. 그때까지 합류하지 못한 지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이미 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전망과 함께 윤석

열 전 총장의 행보를 의식한 듯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정치적 판단은 개인의 고독한 선택이어야 하지만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유의미한 전략인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제3지대 필패론’에 대해 언급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3일 윤 전 총장과 만난 회동에서 “우리 정치 상황은 프랑스와 달리 제3지대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전날(6월 29일) 출마선언 당시 ‘국민의힘과 가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지가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간접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제3지대’보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해 지난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나타났다.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의 경우 29.5%로 확인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0%.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박태홍 기자 pth7285@

## 델타 변이 확산에 文 “방역 없이 경제 없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수도권 방역 총력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 文, 내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

반도체 협력 논의 할 듯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브리핑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 5000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한국과 교역 수준이 2위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 “삶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

신복지 등 현안별 공약 소개

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는 5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상황인 만큼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8분 40초가량의 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의교 ▲문화강국의 꿈 등 현안별 공약에 대해 소개했

코로나19 대유행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후보는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좁아져서 낮아지지 않는다.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삶을 불안해하고,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자신이 민주당 적통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이 5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해 대선 출마를 비대면으로 선언했다. /이낙연TV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전·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자신의 ‘학교’라고 표현한 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